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마음은 마음이 아닌 '비심'

마음씨 타령 ①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심이다. 비심인데 이걸 이름하여서 마음이라 한다. 이러하니 실로 이것이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이라 해 봤든 무엇을 걷어잡고 우리가 마음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또 마음이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아주 불가사의한 자리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써. 쓰는 이 마음씨가 지극히 불가사의한 자리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지나간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 골자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씨를 매일 써. 이 마음씨를 알긴 알아야겠는데 알아 봤든 알려고 하는 그 놈이거든. 내 마음씨가 어떤 것인고 알려고 하는 바로 그 놈이라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도 얻지 못하고 미래심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때는 언제라도 허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아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첩경의 길이 될 겁니다.

허공,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허공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 허공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도 나투고 태양도 나오는데, 나와서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허공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 참 막연해. 사실로 이거 아주 드높은 고갭니다. 실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 공부하는 것도 이 자리 알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 알아 버리면 여기는 죽고 사는 것이 딱 끊어진 자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나투어. 착하고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착하고 악한 것도 나투어. 밝고 어두운 것도 없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것도 나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하면 나중에는 말이지 생사와 생사 없는 것이 딱 하나라는 것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말할 것 없이 파도나 한가집니다.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데 중생들은 파도 이놈에만 얽매어 있거든요. 이 파도도 역시 하나의 물인데 파도라 해서 물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바다는 안 보인단 말이죠. 파도만 보여. 그래서 이러한 설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음씨타령을 하나 붙여 봤거든요. 마음씨타령. 우리나라 말로 타령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소리, 노래, 타령. 마음씨 타령이라 했는데 이걸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송] 두렷하게 맑은생각 법이라하면
휘영청히 밝은마음 부처아니냐.

만약 두렷한 생각이 마음이라 말이죠. 마음이란 것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은 비심이라. 이름뿐인 마음이라. 그러나 이름뿐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름뿐인 마음이라 하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맑아. 그러하기

> 과거 · 현재 · 미래의 마음
> 얻지 못할 때 허공 생각해야
>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지만
> 중생들은 파도에만 얽매인다
> 생사와 생사 없는 것 딱 하나
> 마음은 부처자리 곧 하나의 법

때문에 도저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아닌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우리 보림선원에서 새기는 것은 아닌 마음이다 이렇게 새기고 있죠. 비심하면 아닐 비자거든요. 아닌 마음이다. 보통 마음이 아니라고 새기지만 우리는 아닌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새기거든요. 아닌 마음이라 하면 아니라도 좋아요. 아닌 마음이라 하는 이놈은 있거든.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것은 있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닌데 마음이 아닌 그것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뭣꼬. 왜 이런 복잡한 한문을 썼을고? 한문이 아주 좋아요. 다른 의미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런 좋은 글 가지고서 비심이라 했느냐.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새기는데 우리는 아닌 마음이다 바로 이래 버렸거든요. 그럼 아닌 마음 그 놈은 있거든. 또 마음이 아닌 그 놈은 또 있거든요. 이건 무엇인가. 이거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참 불가사의하거든요. 불가사의하면서도 마음을 써.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걸 써. 그러하니 이거 기막힌 자리 아니에요? 결국은 이 자리 하나 알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강송] 두렷하게 밝은성품 법이라하면
휘영청히 밝은마음 부처아니냐.

성품, 이래 하면 하나의 법이거든요. 밝은 마음이 바로 성품이거든요. 그러하니

[강송] 어즈버야 온누리는 불가사의니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쇠꽃, 철화, 그러니 두렷하게 밝은 성품을 보자면 바로 허공입니다. 두렷하다고 써 놨지만 두렷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하니 천상 두렷하단 말을 부처님도 이 말을 빌려서 많이 썼습니다. 두렷하다는 것은 우리의 눈동자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두렷하게 봐. 하지만 두렷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두렷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누리는 두렷한 데 속한 것도 아니고 두렷 안 한데 속한 것도 아니에요. 모난 데 속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씨를 말마디로써 표현한다면 그렇게 그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휘영청한 마음씨가 물건 사고 싶으면 물건을 사.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를 해.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어. 휘영청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탁탁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이 어찌 부처가 아니냔 말이에요. 성품이 법이라면은 마음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의어서 절대로 부처 찾지 못합니다. 만약 마음을 여의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건 외도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부처자리, 네 글자가 있는데 부처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또 부처니 마음이니 하나의 법이거든요. 법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뭣을 갖다 써도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명의 존재' 빠짐없이 구제한다

15-2 섭취게(攝取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정 자기 할 짓을 소신대로 해 나가는 원효대사 말씀으로는 이 믿음의 진리란 것은 알뜰한 것이란 것이다. 알뜰한 것이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노력해서 얻은 뒤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재로운 해탈을 얻어 뛰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특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염불하는 사람의 환희와 커다란 긍지가 있다.

염불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가고 미타의 힘으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아 버리면 전전으로 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된다. 또 얼른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이러는 것은 감사 대상을 두고 하는 절대적인 귀명(歸命)이다. 이렇듯 순종하고 귀의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대로의 커다란 자부와 긍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보은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곧 나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다. 내 자신이 사람이다, 나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웁게 살 것을 선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뭣인가? 이것은 바로 제 2의 인권선언이다. 이건이 염불하는 사람의 확신이고 또 긍지인 것이다.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졌다. 그런 줄 알아주시오, 하는 이 소리는 얼른 듣기에도 퍽이나 겸손하고 차라리 못생긴 것 같지만, 못난 여기에 긍지가 있고 동시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엄숙한 유아독존(唯我獨尊)이 깃들인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났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장하다. 이렇게 제 잘난 척하고 아만(我慢)을 내세우는 것과 수수하게 처져 있어 보은하고, 감사하고, 그런 겸허한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제가 잘 났다. 나는 이러할 작정이다. 저러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저력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이것이 염불하는 사람의 위력(威力)이고, 그런 가운데 법열도 큰 것이 있다.

16. 사홍서원(四弘誓願)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이것은 큰마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 대승(大乘)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발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은 첫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자체, 사람이란 것, 중생이란 것은 이루 다 헤아릴

>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중생
> 맹세코 제도하고자 원 세우고,
>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 일어나는 번뇌망상 끊고,
> 넓고 넓은 법문의 세계
> 맹세코 모두 배우기로 결심하고,
> 스스로 깨친 바를 남에게 전하고
> 행동하고 실천해 불도를 이룬다
>
> 네가지 원을 다시 이야기하면
>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 한다

수 없다. 아무리 한량이 없다손 치더라도 끝내 다 건져야겠다, 맹세코 제도해야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제해 주어야겠다 하는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살아 나가고 있는 이상에는 모든 죄악성을 내포한 번뇌 망상이 또한 한정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 무궁무진한 것이 있지마는, 이를 맹세코 끊어 없애야 한다.

셋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學問)의 분야, 법문(法門)이라는 것은 넓고 깊고 한량이 없는 것이지만 맹세코 학문을 하기로 원을 세운다.

넷째는 자기 자신이 진정 깨친 바를 남에게 가르쳐 깨치도록 하고, 그것을 실지로 행동화하여 성취하는 이 불도(佛道)는 그 위에 더 덮을 수 없이, 가장 높은 것인데 기어코 이를 이룩하도록 서원을 세운다.

이 네 가지 원을 다시 얘기한다면 위로는 우리가 깨쳐야 되겠다는 상구보리(上求菩提)와 밑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리가 깨친다는 데는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또는 몸이나, 이른바 오관(五官)이라는 감관신경(感官神經)이 기본 토대가 된다. 이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하여 아는 것이다. 불교에서 육근(六根)이라는 것은 이 오관을 이름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눈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다. 눈으로 보아 깨치는데도 다섯 가지종류가 있다.

첫째는 육안(肉眼). 직접 우리들의 육신에 감각을 전달하는 시각 기관이다. 육안이라는 말 가운데는 눈, 코, 귀, 혀, 몸의 오관이 다 같이 통하는 뜻으로 쓰인다. 몸에 의한 감각적인 것. 이것은 물질의 형상을 대상으로 이것은 희다, 저것은 푸르다, 이것은 짙다, 옅다, 흘러간다, 정지하고 있다 하는 등으로 말하는 것의 총칭. 개별적으로는 눈의 대상은 빛, 색깔이다. 귀는 소리, 코는 향기, 혀는 맛, 몸은 차다, 덥다 하는 촉각을 가졌다. 이것을 통틀어 육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관신경의 대상인 객관세계(客觀世界)는 유한과 차별상으로서 인식된다.

육안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밭에 콩을 심어 콩을 거두어 들인다는 인과의 법칙이 지배한다.

이것은 현실세계(現實世界)이므로 퍽이나 중요하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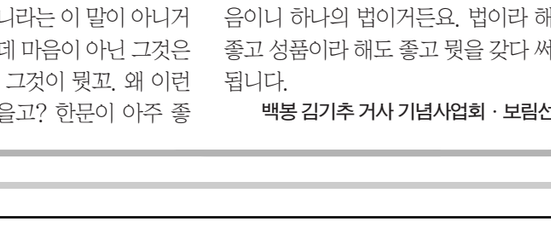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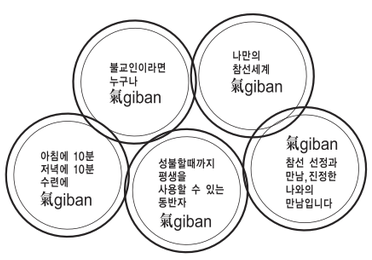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